

Diversitas

Diversitas

Libertas

Justitia

Veritas

et

Diversitas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Korea University Diversity Council

07

다양성을 통해 이뤄 낸
고려의 최전성기

김승수 역사 소설 작가

43

텔레비전과 다양성:
TV가 전달하는 다양한 가치들

김설아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직교수

다양성을 통해 이뤄 낸
고려의 최전성기

길승수

역사 소설 작가

‘넷플릭스’에서 만든 ‘킹덤’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16세기 말,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의 상황에서 설정을 가져왔고, 한국 드라마에서는 흔히 접하지 못했던 좀비를 등장시킨 판타지물이다. 지난해 시즌 2 마지막 화가 끝나며 유명 배우인 전지현이 잠깐 등장해, 드라마 팬들은 시즌 3의 주인공이 전지현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배우 전지현의 밝고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기대했던 것이다. 올해 7월에 후속편 ‘킹덤-아신전’이 공개되었는데, 과연 주인공이 전지현이었다.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아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이다.

팬들은 드라마 내용이 아신의 영웅적인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일단 아신은 조선인이 아니다.

* 본 글은 필자의 소설 『고려거란전기, 거울에 내리는 단비』와 향후 출간될 『고려거란전쟁에 대한 역사서(가칭)』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영향력 안에 있던 여진족이었다. 여진족들은 숙신(肅愼)·말갈(靺鞨) 등으로도 불렸던 민족으로, 주로 만주와 연해주에 거주하며 우리나라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 고구려와 발해의 주요 구성원이었으며, 고령이 가장 전성기를 누릴 때 역시 수많은 여진족들이 고령의 테두리 안에서 살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진족은 주로 악역을 맡아 왔고, 더구나 주인공이었던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아신은 소위 영웅이 아니었다. 조선인들의 배신으로 아버지와 부족을 잃고 조선에 대해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었다. ‘멀시와 탄압을 받는 여진족들’과 ‘그들을 이용하고 배신하는 조선인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구도의 이야기는 없었다. 한국 드라마의 다양성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킹덤-아신전’은 매우 흥미로웠다.

우리 역사상 가장 개방적이었던 때를 꼽으라면 고령 시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고령의 다양성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민족들 가운데 고령 주류 사회의 주역이 된 이들이 여럿이었다. 고령은 나라를 세우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민족을 가리지 않고 재능 있는 인재들을 십분 활용했다. 그리하여 폭넓은 다양성과 개방성으로 나라의 역동성이 절정에 달할 때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 왕건의 포용력과 발해인 대도수(大道秀)

9세기,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신라는 이제 그 명운을 다하고 있었다. 각 지역에서 일어난 군웅(群雄)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쟁투를 벌였고, 그중에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와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종 승자는 궁예도 견훤도 아니었다. 승자는 궁예의 폭정을 계기로 쿠데타를 일으킨 궁예의 부하 왕건이었다. 왕건은 고려를 세우고(918년) 후백제와 신라마저 병합하여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주인이 된다.

왕건이 궁예나 견훤보다 월등히 뛰어난 점은 그의 포용력이었다. 궁예는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왕위에 오른 뒤 점점 포악해져, 신하들을 함부로 죽이고 심지어 자신의 부인과 두 아이까지 죽였다. 견훤은 경주로 쳐들어와 신라의 경애왕과 그 신하들을 죽이고 경애왕의 왕비를 비롯한 후궁들을 옥보였다. 몇 년 후 후백제군이 경주를 다시 침공하자, 후백제군에 의해 학살당한 경험이 있던 경주인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때 왕건

은 즉시 구원군을 보내 경주를 보호했다. 경주인들은 왕건의 은혜와 호의에 감동했고, 왕건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신라를 병합하게 된다.

견훤은 넷째 아들인 금강(金剛)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다. 그러자, 첫째 아들 신검(神劍)이 반란을 일으켜 제 아버지를 금산사에 유배한다. 견훤은 금산사를 탈출하여 왕건에게 귀순했고, 왕건은 그런 견훤도 포용하여 ‘상보(尙父)’라고 높여 부르며 우대했다. 얼마 후 후백제를 병합한 후, 신검을 비롯한 후백제 장수들 역시 모두 용서한다. 오직 견훤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던 몇 명만 처단했을 뿐이었다.

왕건과 견훤이 각축을 벌이고 있던 무렵, 북쪽에서는 큰일이 발생한 다. 당시 신생 국가인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던 것이다(926년). 발해 유민들이 살길을 찾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남하하자, 왕건은 이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해 준다. 특히 발해의 세자 대광현(大光顯)이 수만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오자¹⁾, ‘왕계(王繼)’라는 이름을 내려 주고, 백주(白州, 황해남도 배천군)를 영지로 하사했다. 왕건은 귀순하는 발해인들을 매우 후하게 대하고, 살길을 마련해 줬다. 고려에서 살게 된 발해인들은 왕건이 후삼

1) 대광현이 고려에 온 시기는 역사서마다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934년으로,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서는 925년, 『동국통감(東國通鑑)』에는 926년으로 되어 있다.

국을 통일하고 북방을 개척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발해가 멸망한 지 70여 년이 지난 후, 이번엔 거란이 고려를 침공했다(993년). 거란군의 총사령관은 소손녕(蕭遜寧)이었다. 당시 고려에는 태조 왕건의 손자이며 6대 왕인 성종(成宗, 재위 981~997년)이 즉위해 있었다. 성종은 즉시 내사시랑(內史侍郎) 서희에게 군사를 주어 거란군을 막게 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이렇게 말하며 최전선으로 직접 달려 나갔다.

“지금 인근의 적이 침입하여 나라를 어지럽히니, 짐이 직접 군대를 인솔하여 적을 물리치러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거란은 이때 강한 군사력으로 송나라를 압박하고 있었다. 송나라는 여러 차례 거란군에게 패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거란군의 침공에도, 성종은 위험을 무릅쓰며 스스로 앞장섰던 것이다.

고려군과 거란군은 대령강(평안북도 청천강의 지류)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초반에 고려의 선봉군이 거란군에 패하자, 신하들 중에는 ‘항복

론'과 땅을 떼어 주고 화해하자는 '할지론(割地論)'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 성종이 할지론에 잠시 흔들리자 서희가 강력히 주장했다.

“전투의 승부는 국력의 강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적의 빈틈을 보아 기동하는 데 있습니다. 국토를 적에게 떼어 준다는 것은 만세의 치욕입니다. 신으로 하여금 적과 전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승부를 본 후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성종은 서희의 의견에 따라 거란군과 승부를 겨루기로 결정했다. 서희가 이끄는 고려군과 소손녕의 거란군은 서로의 빈틈을 호시탐탐 노렸다. 먼저 움직인 쪽은 소손녕이었다. 원정군 입장에서는 시일을 오래 끌 수는 없었다. 식량이 곧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소손녕은 고려의 주력군이 주둔해 있는 곳을 우회하여 청천강 하구에 있던 고려의 안용진(安戎鎭)을 급습했다.

거란군이 안용진을 급습하자, 중랑장(中郎將) 대도수가 군사들을 지휘하여 이들과 맞서 싸웠다. 대도수는 결국 안용진을 지켜 낸다. 대도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발해인이었다. 전해지는 대씨 족보에

의하면, 발해 세자 대광현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대도수의 승전으로 거란군의 남하는 저지되고, 고려와 거란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여기서 그 유명한 서희의 담판이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대도수가 안용진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역사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다. 이때의 공으로 대도수는 장군으로 승진하게 되고, 고려군의 중요 인물이 된다. 70여 년 전, 왕건이 발해인을 고려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우대한 결과였다.

고려 성종, 거란의 사위가 되다

거란족은 9세기까지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때로는 고구려와 발해, 혹은 당나라 등에 복속되어 살아갔다. 9세기 말, 거란의 태조 야율 아보기(耶律阿保機)가 등장하여 나라를 세우고 점차 강성해지다가 급기야 발해를 멸망시킨다. 야율아보기의 뒤를 이은 태종 야율덕광(耶律德光)은 만리장성을 넘어 남하하여 지금의 북경을 포함하는 지역인 ‘연운(燕雲) 16주’를 점령했다.

야율덕광은 한족들이 사는 연운 16주를 거란의 정치 체제가 아닌 한족의 정치 체제로 다스렸다. 소위 말하는 ‘이원적인 통치 체제’였던 것이다. 거란의 변발을 한족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며, 한족 출신의 신하들에게는 황제가 주관하는 조회에 참석할 때에도 한족의 복식을 그대로 착용하도록 허용했다. 점령한 지역의 전통을 인정한 이런 통치 체제로 인해 거란의 국력은 막강해졌다. 거란 역시 다양성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한 것이었다.



거란을 다룬 중국 드라마 '연운대(烟云台)'의 거란족 복장의 관리들(좌)과 한족 복장의 관리들(우)
출처: 채널차이나 '연운대'

서희와 소손녕의 협상으로 군사적 충돌은 멈췄지만,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었다. 소강상태에 가까웠다. 서희는 후에 강동 6주라고 불리게 되는 지역을 개척하여 이곳을 단단한 방어선으로 만든다. 거란의 재침략에 대비한 것이었다. 또한 고려 성종은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같이 거란을 공격할 것을 제안했다. 거란군에 여러 번 대패했던 송나라는 이 제안을 거절한다. 그런데 고려가 송나라에 이런 제안을 한 것을 거란이 모를 수가 없었다. 고려와 거란의 긴장감은 높아져 갔다.

이때 거란에서 고려에 사신을 보내서 먼저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 좋은 말로 고려 성종을 달랜 것이었다(994년 8월). 역사 기록이 단순하여

정확히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서로 간에 무척 호의적이었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다.

그다음 해(995년 9월), 고려 성종이 거란에 혼인 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거란이 이 제안을 수락하여 고려 성종의 배필을 정했다. 배필이 될 여인은 바로 소손녕의 딸이었다. 거란은 황제의 가문인 야율(耶律)씨와 황후의 가문인 소(蕭)씨의 연합으로 출발한 국가였다. 소손녕은 가장 지체 높은 황후 가문에 속해 있었으며, 거란 황제의 부마(사위)였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소손녕의 딸은 공주급의 신분이었던 것이다. 이때 고려 성종의 나이는 36세로 슬하에 딸 2명만 두고 있었다. 만일 소손녕의 딸이 고려로 시집와서 아들을 낳게 되면 거란의 핏줄을 이어받은 고려의 왕이 탄생할 수도 있었다.

거란 황실의 혼인 제도는, 어린 나이에 정혼(약혼)을 한 후, 혼인 생활을 할 만한 나이가 되면 여자가 남자의 집으로 가서 시집살이를 하는 형태였다. 이때 고려 성종의 나이는 36세로 불혹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럼 배필인 소손녕의 딸 나이는 과연 몇 살이었을까? 그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할 수는 있다. 월국공주(소손녕의 부인)의 당시 나이는 20세였다. 따라서 소손녕의 딸 나이는 4~5세 정도, 어쩌면 더 어

린 갓난아기였을지도 모른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상당히 나이 차가 나는 혼인이었다. 그런데 실제 결혼 생활로 이어지진 못했다. 성종이 혼인을 요청하고 2년 후, 38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이었다.

■ 채충순과 주저의 충성과 절개

채충순(蔡忠順)은 고려의 관료로 개경 궁궐에 있었다.

그때 송나라의 장삿배가 들어와서 표문(表文)을 올렸는데 채충순이 보기에 문장이 정교하고 학식이 있었다. 채충순은 사람을 보내 표문 지은 사람을 불렀다. 그는 송나라 온주(温州) 사람 주저(周佇)였다. 채충순은 주저와 문장을 주고 받으며 이야기를 나눈 후, 주저의 재주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채충순은 즉시 당시의 왕인 목종(穆宗, 재위 997~1009년)에게 보고했고, 목종은 주저를 예빈성주부(禮賓省注簿)에 임명했다. 예빈성은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아 보던 관청이었고, 주부는 종7품에 해당하는 직이다. 과거에 급제해야 임명되는 관직으로, 매우 파격적으로 임명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파격 인사가 꽤 흔했다.

현대의 한국은 유교적 문화가 깊이 뿌리박혀 있는 나라이다. 그 시발점은 고려 광종(光宗, 재위 949~975년) 때 도입된 과거제이다.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었으므로, 과거를 볼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 대다수가 유교 경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유교 문화 역시 차츰 생활 속으로 침투하게 되었던 것이다.

과거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신분제를 바탕으로 관리들을 뽑았다. 그러다 보니 인재 풀이 매우 좁을 수밖에 없고, 특정 세력이 관직을 독점하게 되는 일도 생겼다. 시험으로 관리를 뽑는 과거제는 이전보다 훨씬 공정한 제도였으며, 다양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특정 세력에 의지하는 일이 줄어들어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다.

이 과거제의 도입은 쌍기(雙冀)라는 관리가 광종에게 건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쌍기는 고려인이 아니었다. 그는 후주(後周)²⁾ 사람으로, 956년(광종 7년)에 사신단의 일원으로 고려에 왔다가 병에 걸려 고려에 머물렀다. 광종이 쌍기의 재주를 알아보고는 등용했던 것이다.

쌍기가 고려에서 후대받자, 고려로 귀화하는 한족들이 크게 늘었다. 광종은 이들 중 학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들을 후대하여 관직에 임명했고, 이들은 광종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이 되었다. 고려에서는 광종 이후에도 재능있는 한족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2) 후주(後周, 951~960년)를 이어 송나라가 세워진다.

속에 주저 역시 등용되었던 것이다.

목종 12년(1009년), 고려에서 변란이 일어났다. 중추사(中樞使) 강조(康肇)가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顯宗, 재위 1009~1031년)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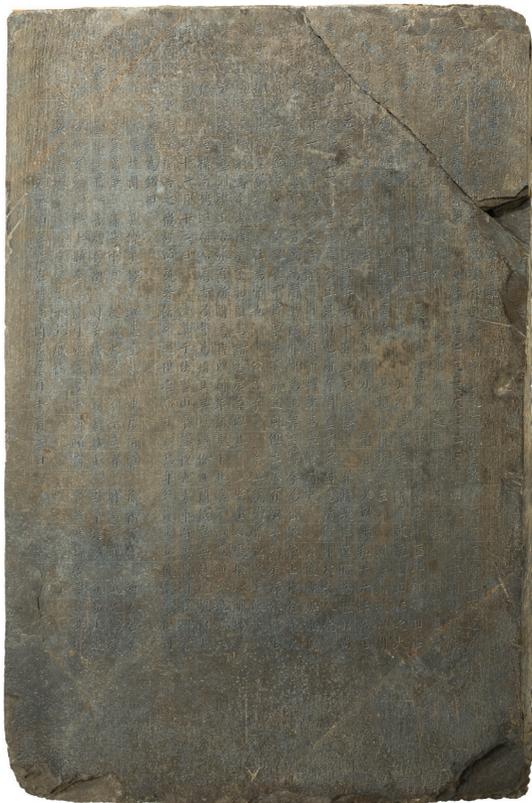
거란은 고려의 왕이 교체된 것을 빌미 삼아 40만 대군으로 고려를 침공했다(1010년). 거란군은 통주(평안북도 동림군) 근처 삼수채에서 강조가 이끄는 고려의 주력군을 격파하고, 고려의 성곽을 우회해서 개경까지 남하한다. 거란군이 개경까지 몰려오자 개경의 관료들 상당수는 남쪽으로 도망쳤고, 남아 있던 조정의 신하들은 항복할 것을 현종에게 건의했다. 이때 예부시랑(禮部侍郎) 강감찬이 일갈했다.

“지금의 일은 근심할 바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우리의 군세가 적어 적들을 상대할 수 없으니, 일단 예봉을 피해 시간을 번 뒤에 서서히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종은 강감찬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나주로 몽진을 떠났다. 군사 50명과 비교적 젊은 관리들이 현종을 호종(扈從)했다. 그때 채충순과 주

저도 있었다. 상황은 매우 어려웠다. 개경을 떠나자마자 고려인들이 현종의 일행을 공격했다. 당시 고려 중앙 정부의 행정력이 지방 구석구석까지는 미치지 않았던 것이다. 창화현(경기도 양주시)에 이르러서는 지역민들의 공격에 왕을 따르던 관리들이 뿔뿔이 흩어질 정도였다. 대부분의 관리들은 현종을 버리고 살길을 찾아 도주했다. 그러나 채충순과 주저는 현종을 기어코 찾아 다시 합류했다. 나주로 가는 동안 여러 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현종의 곁을 지켰다.

채충순의 집안은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채인범(蔡仁範, 934~998년)이라는 사람의 묘지명(墓誌銘)이 발견되면서 실마리를 찾게 된다. 묘지명은 죽은 사람의 행적을 돌에 새겨서 무덤 속에 넣은 것이다. 비석과 비슷한데, 비석은 무덤 근처에 세우는 것이고, 묘지명은 무덤 안에 넣는다는 것이 다르다. 채인범의 묘지명에 의하면, 그는 송나라 사람으로 970년(광종 21년)에 고려로 귀화했다. 묘지명의 내용을 연구한 결과, 채충순이 채인범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채충순은 송나라계 고려인이었던 것이다.



채인범 묘지명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³⁾

3)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6832>

■ 포용함으로써 확대된 영향력

거란군은 개경까지 함락했지만, 퇴각하는 중에 고려의 장수 양규(楊規)를 비롯한 고려군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송나라 역사서인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때, 거란이 다시 대군으로 고려를 정벌했다. 왕순(현종)이 여진과 병사를 합쳐서 항거하여 거란군을 대패시켰다. 거란의 귀족과 병사, 수레 중에 돌아온 것이 드물었다. 거란의 관리들도 태반이 전사했다. 이에 유주(幽州, 현재 북경)와 계주(薊州)에 영을 내려, 일찍이 관직을 구하려던 사람부터 조금이나마 글을 아는 사람까지 뽑아서 관리에 보충했다.’

거란의 피해는 막대했고 사실상 패한 전쟁이었던 것이다. 거란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다. 따라서 고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다. 그

리하여 1013년부터 매년 군대를 보내 고려를 침공했다. 1014년, 1015년, 1016년, 1017년...,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목사(木史)는 압록강 인근에 사는 여진족이었다.

계속되는 전쟁에서 여진족들은 처음에는 주로 거란군에 가세해서 고려를 침공했다. 거란과 고려 사이에 끼인 존재들인 이들은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 어느 편에든 가담을 해야 했다. 그렇다면 더 강한 쪽에 붙는 것이 이익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자 이들이 입는 피해는 극심해졌다.

목사는 어느 날 결심을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일족을 데리고 고려로 망명을 했다.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여진인들이 고려로 넘어오거나 협조했다. 거란의 편에 서는 것보다 고려의 편에 서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목사는 고려의 구주성(평안북도 구성시)에 거주하게 되고, 고려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리고 고려군과 더불어 거란군에 맞서 싸워 전공을 세운다.

1018년 12월, 소배압(蕭排押)이 10만 군사를 이끌고 또다시 고려를 침공했다. 현종은 소배압이 침공해 오자, 강감찬을 고려군 총지휘관인

상원수(上元帥)로 임명했다. 소배압은 강감찬의 주력군을 피하고 고려의 모든 성곽을 우회해서 개경까지 진격했다. 개경까지 오면 현종이 또다시 도망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현종의 준비는 철저했고 개경을 강력히 사수했다. 이때에도 채충순과 주저는 현종의 결을 지켰다. 거란군은 회군하게 되고, 강감찬은 회군하는 거란군을 추격한다. 결국 1019년 2월 1일, 구주성 동쪽 들판에서 두 나라 군대가 마주쳐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이 전투를 ‘구주대첩’⁴⁾ 이라고 한다.

‘거란 군사가 구주를 지나니, 강감찬 등이 동쪽 들판에서 맞아 크게 싸웠는데 서로 막상막하로 승패가 쉽게 결정되지 않았다. 이때 김종현이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왔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자 우리 군사가 기세를 타서 분발하여 적을 공격했다. 곧 거란 군사가 패하여 북쪽으로 도망하니 우리 군사가 뒤쫓았다. 죽어 널부러진 거란군 시체가 들판을 덮고, 사로잡은 군사와 말·낙타·갑옷·투구·병기는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었으며, 살아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뿐이었다. 거란 군사의 패전함이 이때와 같이 심한 적은 없었다.’

4) ‘구주대첩(龜州大捷)’이라고 많이 불리나, ‘龜’는 ‘구’로 발음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구주대첩’이라고 칭한다.

이때 목사도 고려군의 일원으로 구주대첩 기간 동안 거란군에 맞서 싸웠다. 그 당시 고려군에 가담한 여진족의 인원수는 상당했다. 거란이 모든 국력을 동원해 고려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현종을 비롯한 고려인들은 그것을 막아냈고 그 일에는 많은 여진족들도 함께했던 것이다.

구주대첩 이후로 고려는 북방을 계속 개척했다. 1031년에는 천리장성을 쌓았고, 1044년에는 동쪽 국경인 지금의 함경남도 정평군 지역에 성을 쌓아 개척한다. 이때 고열(高烈)이라는 장수가 공을 세우는데 그의 관직은 병부상서(兵部尙書)였다. 병부상서는 지금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관직이었다. 그런데 고열은 여진족(흑수말갈족) 출신이었다. 지금에 비유하자면 일본인이나 중국인 같은 외국인이 한국의 국방장관이 된 것과 비슷한 일이었다.

여진족 출신이 국방장관이 될 정도이니, 그 아래로는 수많은 여진족들이 고려의 관직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군대 내에는 여진족의 숫자가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열은 사공(司空)이라는 관직까지 올라간다. 사공은 정1품의 최고위직이었다. 1056년에 고열이 사망하자, 당시 고려의 왕인 문종(文宗, 재위 1046~1083년)은 3일간 조회를 중지하고 모

든 관리들에게 장례식에 참석할 것을 명했다. 최고의 예우를 한 것이다. 사람들이 고열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겼다고 한다.

고려에서 정책적으로 여진족들을 후대하자, 고려의 동북 방면에서는 여진족들이 자신의 마을을 고려의 행정구역에 편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족 단위로 살아가는 여진족들 사이에는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고려의 체제 속에서 안정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이들은 거란보다 고려를 택했는데, 이들에 대한 대우가 고려 쪽이 훨씬 나았던 것이다.

고려에서는 여진족 마을에 고려식 군현을 설치했다. 그렇지만 다양성과 관습을 존중하여, ‘여진족 사이에 서로 죄를 범한 경우 각각 부족의 관습대로 처리한다.’는 법령을 제정하여 그들을 관리했다. 여진족 마을들은 속속 고려에 편입되었다. 고려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었고 『고려사 지리지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서북쪽 국경은 고구려에 미치지 못했으나, 동북쪽은 고구려를 넘어섰다.’

고려의 이 지역 영향력은 여진족들이 금나라(1115~1234년)를 세울 즈음까지 계속되었다.

■ 송나라 사람이 고려에서 거란군을 보다

1123년(고려 인종 원년)에 송나라의 사신단이 고려에 온다. 그 사신단 중에 서궁(徐兢)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고려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선화봉사고려도경』이라는 책을 지었다. 보통 『고려도경』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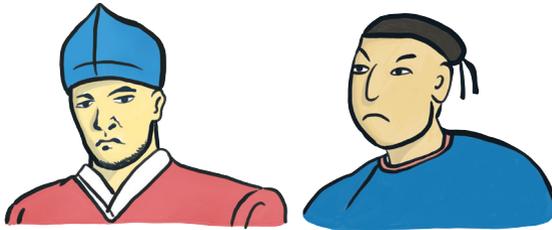
서궁이 개경에 왔을 때, 기병 수십 기가 앞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다.

‘앞에서 인도하는 기병 수십 기(騎)를 보았는데, 말방울을 울리며 치달고 안장과 등자 사이에서 날렵한 동작을 취하는 것이 경쾌하고도 민첩하였다. 이것은 무술을 자랑하려는 것이다.’

외국 사신 앞에서 경쾌한 기마술을 자랑하는 고려 기병들을 보다가, 서궁은 이들의 옷차림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기병들의 복식이 한결같지 않다. 긴 두건을 쓴 기병들은 모두 고려 사람이었다. 머리를 깎고 두건을 정수리에 딱 붙게 쓴 것은, 듣건대 거란 사람들과라고 한다.’

고려인들과 거란인의 두건이 달랐던 이유가 있다. 고려인들은 상투를 틀었기 때문에 정수리가 솟은 두건을 쓰지만, 변발을 한 거란인은 상투가 없기 때문에 정수리에 딱 붙는 두건을 썼던 것이다.



고려의 두건(좌) 거란의 두건(우)
출처: 상상화 - 필자 제공

한국에서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외관상 명백히 차이 나는 혼혈인들은 한국 국적임에도 군대에 갈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시기의 고려에서는 외관상 명백히 차이가 나는 거란인들도 고려군에 복무했으며, 변발과 같은 거란인의 전통을 그대로 존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는 고려에 살고 있던 위초(尉貂)라는 거란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는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먹여 아버지의 병을 치료했다. 이 사실을 들은 당시 고려의 왕 명종(明宗, 재위 1170~1197년)은 그를 크게 칭찬하며 포상했다.

‘위초의 효성은 고금에 으뜸이다. 효는 모든 행실의 근원이라 하였고, 또 충신은 효자의 집안에서 구한다고 하였으니, 위초의 효성은 상을 받아 마땅하다.’

이때 위초의 관직은 산원동정(散員同正)이었다. 산원은 현대로 치면 중위나 대위 정도의 군 장교직이었다. 거란인이 장교로 복무할 정도로 고려 군대는 개방적이었다.

구주대첩 이후 고려에 수많은 거란인이 살게 되었으므로 그들만의 집단 거주지도 있었다. 마치 현대의 미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이나 코리아타운과 같았다. 다음은 『고려사』의 1117년 기록이다. 당시 고려왕 예종(睿宗, 재위 1105~1122년)은 남경으로 순행을 갔다.

‘8월, 왕이 남경(南京)에 행차하였다. 왕이 남경에 도착하자, 귀화해 남경 부근에 거주하는 거란인들이 자기 고유의 가무(歌舞)와 잡희(雜戲)를 공연하며 어가를 맞이하니, 왕이 행렬을 멈추게 하고 관람했다.’

남경은 지금의 서울특별시이다. 고려 시대에는 지금의 서울특별시 지역에 거란타운이 있었던 것이다. 수만 명에 달했던 이들은 긴 세월을 지나며 한국인의 일부분을 구성하게 되었다. 거란족은 기본적으로 한국인과 같은 황인종이지만, 유목민답게 혼혈이 많이 이루어져서 외모가 지금의 위구르인이나 터키인처럼 생긴 사람이 꽤 있었다.

이제 거울을 한번 보자. 만일 자신의 코가 높고 이마가 솟아 있다면 거란인의 후예일 수도 있다.

문화 교류의 진수, 진병대장경과 고려 청자

당시는 고려나 거란, 송나라 모두에 불교가 융성하던 시절이었다. 상호 간에 불교문화의 교류가 이어지는데,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대장경판(大藏經板)’이다. ‘대장경판’과 ‘대장경’은 엄밀히 말하자면 개념의 차이가 있다. ‘대장경판’은 불교 경전과 관련된 내용을 새긴 목판(木板)이고, ‘대장경’은 그런 내용이 적힌 책이다. 그러니까 ‘대장경판’으로 인쇄한 것이 ‘대장경’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체로 혼용해 쓴다. 따라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면 대개 ‘팔만대장경판’을 지칭하는 것이다.

‘대장경판’은 먼저 송나라에서 만들어진다. 이 대장경을 ‘북송관판대장경(北宋官版大藏經, 971~983년에 간행)’이라고 한다. 이 ‘대장경판’의 인쇄본은 991년(성종 10년)에 고려에도 전해졌다. 그런데 1010년 거란군의 침공으로 개경까지 함락당하는 등 큰 위기를 겪자, 고려 왕 현종은 ‘대장경판’을 직접 만들라고 지시했다. 당시 불교는 고려의 국교나 다름없었고, 이런 대형 불교 사업을 통해 백성들의 호국 일념을 고취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장경판을 ‘진병대장경판(鎭兵大藏經板)’이라고 한다. ‘진병대장경’의 뜻은 ‘전쟁을 진압하는 대장경’이라는 뜻이다. 현종의 바람대로 고려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결국 거란군을 막아 냈다. 이 ‘진병대장경판’은 지속적으로 내용을 추가하게 되는데, 후에 거란에서도 ‘대장경판(1031~1054년 간행)’이 만들어지자, 이 ‘대장경’의 인쇄본도 수입하여 내용을 보충했다. 거란을 막고자 했으나, 거란의 문화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국가적인 상징물이었던 ‘진병대장경판’은 안타깝게도 몽골 침략기(1232년)에 불에 타 버리고 말았다. ‘진병대장경판’이 불에 타 버리자, 다시 만든 것이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판’인 것이다. ‘진병대장경’은 처음 만든 ‘대장경’이라는 의미에서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라고도 불리며, ‘팔만대장경’은 다시 만들어진 ‘대장경’이라는 의미에서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이라고도 불린다. ‘팔만대장경’은 ‘진병대장경’, ‘북송대장경’, ‘거란대장경’을 면밀히 참고해 만들어졌다.

고려청자는 9세기경 당나라의 도자기에 영향을 받아 탄생하게 된다. 거란의 도자기는 한족 도공들의 기술을 흡수하여 발전을 이룬다. 구주

대첩(1019년) 이후 고려와 거란은 다시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되고 서로 문화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다음은 거란 도종(道宗, 재위 1055~1101년)의 황후인 선의황후(宣懿皇后) 소관음(蕭觀音, 1040~1075년)이 지은 시의 일부분이다.

展瑤席，花笑三韓碧。

笑妾新鋪玉一床，

從來婦歡不終夕。

展瑤席，待君息。

아름다운 옥으로 만든 자리를 깔아 놓으니,

꽃은 ‘삼한의 푸르름’을 비웃네.

미소 짓는 첩은 새로이 옥으로 만든 상을 놓으며,

지어미의 기쁨은 저녁 내내 끊이지 않네.

아름다운 옥으로 만든 자리를 깔아 놓고,

임금이 오셔서 쉬기를 기다리네.

여기에서 ‘삼한의 푸르름(三韓碧)’은 시 전체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고려청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관음은 자신의 ‘옥으로 만든 자리의 푸른빛’이, ‘고려청자의 푸른빛’보다 더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거란 황후가 시샘할 정도로 고려청자가 거란에서도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청자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고려 도공들이 기술을 계속 발전시킨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으나, 다른 이유도 있었다. 서공의 『고려도경』 제19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예전에 고려가 거란 포로 수만 명을 잡았는데, 그중에 기술이 정교한 자들을 왕부(王府)에 머무르게 하여 근래에는 도자기를 비롯한 그릇과 의복이 더욱 정교하게 되었다고 한다.’

서공이 말한, 거란 포로 수만 명은 구주대첩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고려는 그들을 흡수하여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냈다. 특히 고려청자는 거란의 도자기로부터 굽는 법, 장식 기법과 문양 등을 수용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게 된다.⁵⁾

5) 장남원. (2009). 10~12세기 고려와 遼 金도자의 교류. *한국미술사교육학회지*, 23, 171-203.



흡사하게 닮은 고려와 거란의 도자기 - 청자 투각 용머리장식 붓꽃이(고려)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⁶⁾



흡사하게 닮은 고려와 거란의 도자기 - 요삼채 삼채어룡형필가(거란)
출처: 박병선(2013)⁷⁾

6)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1296>

7) 박병선. (2013). *중국도자사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08445&cid=62057&categoryId=62057>

건국 당시부터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흡수하며 발전했던 고려는 11세기 중기 이후에는 정치·문화·군사적으로 가장 완숙한 전성기를 맞게 된다. 고려가 세계에 ‘코리아’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이다.

다양성, 합리성, 투명성

얼마 전 경찰, 인권 활동가, 통역사 등으로 활동하며 유리 천장을 깨뜨린 ‘이주 여성’들에 대한 BBC코리아의 기사를 접했다.⁸⁾ 그동안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데 폐쇄적이었던 한국이 속도는 느리지만 분명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종종 과거에서 오늘의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양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사회일수록 합리성과 투명성 역시 높아지며 더 많은 역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준다.

다양성을 폭넓게 받아들일 때 고려는 성장했고, 다양성이 축소되고 사회가 경직되자 고려는 쇠락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문화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다양성을 더욱 폭넓게 받아들이려고 노력

8) 하세린, 라라 오웬. (2021. 8. 2). 결혼이주여성: 경찰·인권활동가·통역사… 유리천장 깨뜨린 ‘이주여성’들. *BBC 뉴스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7938558>

한다면 이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에게 고려의 역사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텔레비전과 다양성:
TV가 전달하는 다양한 가치들

김 설 아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직교수

텔레비전은 쉽지 않은 매체이다. 아니 어렵다. 이와 관련된 요구와 의무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재미도 있어야 하고,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이어야 하며, 감동도 주어야 한다. 또 교육적이고 문화적이어야 한다고 한다. 픽션물일 경우 영화를 대하듯이 작품성과 미학적인 부분도 따지고 든다. 텔레비전 방송이 하나의 국가적인 미디어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렇게 복잡다단한 요구들은 아예 방송국이 따라야 할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라는 규칙으로 형식화되었다. 정보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의 양으로 방송하고, 교양 프로그램 또는 오락 프로그램은 얼마나 방송할지를 의무 사항으로 정한 것이다. 복잡하다. 왜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는 다른 미디어와 달리 이런 성가심과 복잡함, 엄격함 속에서 만들어져야 했을까?

이는 이전의 다른 매체가 지니고 있지 못하던 텔레비전 고유의 힘 때문이다. 라디오와 달리 시각과 청각의 주의력을 동시에 요구하고, 영화

관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달리 집 안의 거실 한가운데로, 우리 일상의 한가운데로 파고 들어온 텔레비전은 아주 어마어마한 대중 친화력과 전파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중적인 영향력 말이다.

유럽에서 라디오가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인 1920~30년대, 프랑스 정부는 수많은 공영 라디오들을 개국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민영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서도 방송 허가를 내주었다. 이후 프랑스가 1940년부터 1944년까지 독일 나치에 의해 점령당한 상황에서 그 민영 라디오들은 친나치 방송을 하게 되고, 1945년 해방 이후 새롭게 텔레비전 방송 체제를 정비해 가던 프랑스 정부는 나치 점령 시기에 라디오라는 전파 방송이 민영 업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야기되었던 어두운 과거를 강조하며(또는 이를 벨미로), 라디오보다 더 큰 영향력의 텔레비전을 국가 체제 안으로 완전히 밀어 넣게 된다. 독일 나치의 ‘위대했던’ 프로파간다 영화라는 영상 대중매체와 라디오라는 전파 매체를 통해 아주 효과적으로 전개되었던 만큼, 즉 이 두 매체의 기능과 장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텔레비전의 위력이 자명한 만큼, 프랑스 정부는 이 강력한 미디어를 자신들의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강력한 (훗날 한국에서는 ‘바보상자’라고도 불리게 될) ‘마술 상자’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그 마술적인 힘이 정치적으로 쓰이게 되든, 공익적으로 쓰이게 되든, 아니면 상업적으로 쓰이게 되든 간에), 매체 운영자들의 그 강력한 전파의 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다양한 시선을 담아내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며, 다양한 의견의 장이 되고,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다소 교조적인 임무를 띠게 된다. 그리고 이 임무들은 곧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각 문화권마다 다르게 해석되어 고유의 방식으로 수행되고 실천되어 간다. 그리고 이 임무가 수행되는 방식에 따라 텔레비전은 한편에선 공영방송의 모습으로, 다른 한편에선 상업방송의 모델을 좇아 성장의 길을 닦아 나간다.

텔레비전의 다양한 성장 과정

텔레비전은 그 이전의 매체인 라디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했다. 대부분 라디오를 경영했던 단체나 기업들이 전파 매체 사업을 확장하여 텔레비전 사업까지 도맡았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프로그램 형식과 내용, 제작 방식, 방송 사업 운영 방식 그리고 운영 철학 등이 고스란히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으로 전수된다.

영국과 프랑스의 공영방송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방송의 기틀을 세운 곳은 바로 영국의 BBC였다. 1922년에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영국방송주식회사(British Broadcasting Company)는 전파 방송을 매우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인치하고 있었던 총괄 매니저 존 리스(John Reith)의 신념과 노력 하에, 1927년 영국방송공사(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로 거듭나게 된다(리스는 방송 사업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같은 해에 기사 작위를 받는다). 그리

고 곧 리스는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그 유명한 공영방송의 공식, ‘정보(Information), 교육(Education), 즐거움(Entertainment)’의 세 가지 기본 개념을 만들어 공영방송의 기본 틀을 세운다.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알리고,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내용을 전파하여 시민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본 의무로 삼게 된 BBC는 점차 그 제작과 편성의 초점을 예술과 교육 분야 쪽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물론 시민의 교육과 교양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존 리스의 의지와 고집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처럼 라디오에서 드라마, 스포츠, 대중음악 및 고전음악, 종교, 토론, 인터뷰 등의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통해 수준 높은 방송을 지향하던 BBC는, 1930년대에 잠시 운영되다 전쟁으로 중단되었던 텔레비전을 1946년에 재개하면서 라디오와 동일한 공영방송 철학을 적용하게 된다.

영국의 바다 건너 이웃인 프랑스는, 영국과 다르게 일찍부터 공영과 민영, 두 성격의 라디오 방송을 허가했고, 이후 그로 인한 역사적 폐단을 이유로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도입할 때부터 공영 체제를 굳혀 버린다. 그런데 사실 프랑스가 공영 텔레비전 모델을 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영향을 끼친 원인은 민영 라디오가 저지른 역사적인 과오가 아니었다. 영국의 BBC가 만들어 낸 탄탄한 공영방송 모델에 대한 부러움, 전쟁 후 국가 재건의 시기에 효과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미디어에 대한 요구 등도 텔레비전 공영화의 주요 이유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고용된 인력들이 신문이나 라디오에서 건너온 기자들, 연극계에서 온 극작가와 연출가, 영화계의 시나리오 작가나 연출가 또는 배우들, 즉 프랑스에서 좌파 계열로 구분되는 문화 예술계나 엘리트층의 인력들이었는데, 그들은 보수적 우파 정권의 간섭과 통제가 심했던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일하는 것을 그다지 꺼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유럽의 좌파가 제일 우려하던 것 중의 하나는 유럽이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소비사회로 전환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러한 소비사회에 기대어 유지되던 미국의 상업방송, 즉 상업방송 모델에 강한 반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우파 보수 정권이 자신들과 정치적 목적이나 색깔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들이 국가의 간섭이 정당화되는 공영방송이라는 방송 모델을 취함으로써 텔레비전 방송을 ‘천박한 미국식’ 자본주의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던 만큼, 프랑스의 좌파 방송인들은 이러한 방송 환경에 충분히 만족

하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갔던 것이다.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방송인들이 중요시했던 것 또한 문화와 예술, 교육적인 프로그램의 제작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영국 BBC의 공영방송 공식 ‘정보, 교육, 즐거움’ 중 두 번째, ‘교육’을 ‘문화’로 대체한 ‘정보(information), 문화(culture), 즐거움(divertissement)’을 공식으로 삼아 자신들의 방송 이념으로 내세웠다. 그만큼 프랑스 방송인들은 초기부터 시청자들의 문화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이들 대중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인간’, 또는 ‘깨어 있는 대중’으로 만드는 데에 집착했다. 프랑스 계몽주의의 이상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다음은 1950~60년대 텔레비전 연출가들의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는 당시의 글귀들이다.

“(텔레비전을) ‘보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참여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시청자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는 부르주아의 평범함이 담긴 이야기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난폭함을 좋아한다.…… 나는 ‘모두를 즐겁게 만든다.’는 것이 텔레비전이 가진 저 뛰어난 능력을 감소시킬까 봐 걱정이다. 진정한 TV 연출가라면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드라마로 만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이 아주 적은 소수의 대중에게만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장 폴 까리에르[Jean-Paul Carrière], 1960)

“시청자를 일깨워서 이들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고독과 자신이 지닌 내적 풍부함을 자각하도록 만드는 것, 웃고 떠드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깨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로제 이글레시스[Roger Iglesias], 1959)

유럽의 공영방송 독점 체제는 198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다가, 당시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탈규제’와 ‘세계화’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자리를 상업방송에 내주게 된다. 1980년대 초반까지 (서)유럽 전역에는 단 하나의 민영 채널만이 존재했을 뿐, 그때까지 유일했던 영국 민영 채널 ITV도 실상은 ‘공영적인 상업방송’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공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미국의 상업방송

미국의 텔레비전은, 이미 언급했듯이 완전하게 상업방송으로 시작했다. 1920년, 미국의 최대 무선 기기 제조사인 RCA(Radio Corporation of America)의 영업 담당 임원이었던 데이비드 사노프(David Sarnoff)는 그때까지의 통신 형태이던 1:1의 통신 대신 1: 다(多)의 통신 형태를 회사에 제안하게 된다. 'Radio Music Box Memo'라 불렀던 그 아이디어는 사노프의 과거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그는 그로부터 8년 전인 1912년에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무선통신으로 수신해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언론과 승객의 가족들에게 알린 적이 있었다. 그때 무선통신의 위력을 몸소 체험한 사노프는 이후 이를 기록으로 남겼으니, 그것이 바로 Radio Music Box Memo였다.

그리고 8년 후, 그는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송신 기능이 제거된 저렴한 가격의 라디오 수신기를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것을 회사에 제안한다. 또한 강력한 출력으로 넓은 지역에 송신할 수 있는 방송국을 하나 만들고, 이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전파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유성기의 음악을 실어 내보낼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 결국 대중들이 라디오 수신기를 구매할 것이라고, 즉 RCA가 제조한 라디오 수신기를 살 것이

라는 것이 사노프의 주장인 것이다. RCA는 곧 방송 분야의 수익 전망을 높게 보고 이에 투자하기 시작하여, 얼마 후(1926년)에 NBC(National Broadcasting Company) 네트워크를 세우게 된다.

또 다른 방송사 CBS(Columbia Broadcasting System)는, 1927년에 설립되었으나 경영난에 허덕이던 라디오 방송사를 컬럼비아 레코드사가 사들여(1928년) 세운 방송사로, 이로써 미국에서 전국 규모의 두 번째 네트워크가 탄생하게 된다. CBS의 경우 컬럼비아 레코드사가 음반 판매를 목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세 번째 방송사는 1943년에 설립된 ABC(American Broadcasting Company)로 두 개의 전국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NBC가 하나를 양보하면서 독립시킨 방송사이다. 이렇게 ABC의 탄생과 함께 이후 50여 년 동안 미국 방송계를 지배할 3대 네트워크 시스템이 성립된다.

이렇게 미국의 방송은 국가 기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신기 판매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신기 제조 회사에 의해, 음반 판매 수익을 위한 음반 회사에 의해 모습을 갖추어 갔다. 그리고 그 운영 자금은 당시 미국의 소비자회로의 성장과 함께 급격히 커 가던 미국의 광고 시장에 의해 조달되었다. 이후 이 세 개의 상업 라디오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1940년

대 말부터 똑같이 세 개의 상업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들어서게 되고, 라디오의 프로그램 내용과 형태, 제작 및 편성 방식 등이 그대로 텔레비전 방송에게로 전수된다.

한국의 방송: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그 중간 어디 즈음에

한국에 텔레비전이 처음 등장한 때는 1956년이다.

HLKZ-TV 또는 KORCAD-TV라고도 불렀던 이 텔레비전은 미국의 RCA의 한국 지사가 운영한 상업 텔레비전이었다. 1954년 한국전쟁으로 손실된 국가의 라디오 방송국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 뉴욕의 RCA 본사를 방문한 한국 지사장 황태영은, 미국 본사로부터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대신 당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중매체인 텔레비전 수상을 받아 들여오게 된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도 미국의 상업방송 NBC를 모델로 한 HLKZ-TV가 1956년에 세워진다. 하지만 수상기가 모두 수입품이다 보니 그 가격이 너무 비싸 한국 사회에 텔레비전 보급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게다가 전쟁이 끝난 지 겨우 3년이 지나 아직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점에서 상업 텔레비전에 광고비를 덜 광고주를 찾기도 매우 어려웠다. 결국 1년여가 지난 1957년에 한국일보사가 HLKZ-TV를

인수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화재로 방송국이 소실되고 만다.

1961년에 군사정권이 들어선 후, 공보부가 국영 TV 설립을 계획하면서 HLKZ-TV의 채널(9번)과 제작 요원들을 거두어 갔고, 이후 KBS-TV가 1961년 12월 31일에 개국하게 된다. 하지만 1960년대는 한국 사회에서 라디오가 대중매체로서 승승장구하던 시기로, 텔레비전이 매스 미디어로 자리 잡기까지에는 1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결국 한국의 첫 번째 텔레비전으로 호기롭게 출발한 HLKZ-TV는 너무 성급한 등장으로 실패를 맛봐야 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경성방송국으로까지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갈 수 있는 KBS라디오는 미 군정기와 이승만, 장면 정권을 거치며 국영방송으로 자리를 잡아 간다. 1950년대부터는 한국에도 종교 방송인 극동방송, MBC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부산문화방송과 같은 민영 라디오 방송국이 다수 출현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1960년대 이후, MBC라디오, 동양방송라디오 등이 개국하면서 라디오 전성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같은 시기, 당시의 주요 방송사로 자리를 잡게 된 세 개의 방송-KBS라디오, 동양방송라디오, MBC라디오-는 각기 1961년, 1964년 1969년에 텔레비전 방송국 또한 개국을 하게 된다. KBS는 국영방송,

MBC는 준국영방송, 동양방송(TBC)은 상업방송이라는 서로 각기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셋은 모두 광고주들의 관심을 끌기에 바빴다. 그리하여 1960년대의 라디오에서건, 1970년대의 텔레비전에서건 이 셋은 가장 인기 있는 장르였던 드라마를 두고 항상 불붙는 듯한 경쟁을 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드라마를 둘러싼 방송사들의 열띤 경쟁은 1980년, 1990년대를 거쳐 훗날 2000년대의 한류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1971년, KBS TV드라마 녹화 장면
출처: 국가기록원¹⁾

1)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bsid=200200064068&dsid=000000000009&gubun=search>

한국의 방송은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요구 아래, 그리고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온 국민의 취향에 맞는 즐거움과 감동만을 선사하는, 즉 비판과 논쟁은 피하는 온순한 공영방송의 외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상업방송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철저히 체화하며 실리적인 ‘내실’을 꾀하는 영리한 모습 또한 보여 왔다. 공영적인 상업방송이라 칭하든 상업적인 공영방송이라 칭하든, 한국의 방송은 공영방송과 상업방송, 그 중간 어딘가의 지점에 안착하여 자신만의 모습을 키워 왔다고 하겠다.

텔레비전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콘텐츠와 가치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종류, 즉 장르는 어느 나라 방송이라 할 것 없이 거의 비슷하다. 뉴스 등의 보도 프로그램, 음악 쇼나 버라이어티쇼 등을 포함하는 오락 프로그램, 픽션물, 그리고 가장 최근 장르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꽤나 다양한 장르들이 각 나라의 방송에 비슷하게 존재한다. 이는 초기에 영국의 공영방송 모델과 미국의 상업방송 모델이 전 세계 각국으로 보급되면서 그 프로그램 장르 또한 함께 이동, 안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동일한 장르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보인 것은 아니다. 방송이 따르고 있는 이념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가에 따라,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어떠한고 정치·경제적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 특정한 장르가 다른 장르보다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다. 유럽에서는 유난히 토론 프로그램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미국에서는 오락 프로그램들이 대세를 이룬다. 한국에서는 유난히 드라마가 강세인 것처럼 말이다.

또한 한 나라에서 오락적 장르로 성공한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에서는 본래와는 다른 공익적인 기능을 덤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텔레비전의 창출물이 제도적인 것과 역사, 사회·문화적인 것 등에 인간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만큼, 그 콘텐츠의 창작 범위와 그것이 만들어 내는 가치는 무한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자유롭게 떠들기: 공론장의 가치

유럽에는 유난히 토론 프로그램들이 많다. 시사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예능 프로그램, 정보 전달 프로그램, 육아 프로그램, 책에 관한 프로그램, 심지어는 스포츠 정보 프로그램도 (토크가 아닌) 토론의 형식을 띠고 있다. 저녁 6~8시 사이에 흔히 방송되는 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6~7명이 한 테이블에 모여 코너마다 달라지는 주제에 관해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농담도 하면서, 때론 큰소리를 내기도 한다. 어떤 때에는 게스트로 정치인, 어떤 때에는 가수나 배우를 초대해 놓고 패널들이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신랄한 비판도 쏟아 낸다. 남의 말이 끝날 때까지 점잖게 기다려 주지 않고 서로 자기 말을 하려고 상대의 말꼬리를 자르기에 바쁘다.

흔히 주말에 방송되는 책에 관한 프로그램은 조금 다르다. 시간 도서를 낸 4~5명의 작가들을 불러 놓고 각자의 책에 대해, 상대방의 책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게 한다. 출연자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것도, 의견 대립의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시사 토론 프로그램 중에는 한국의 일일 드라마와 같은 일일 토론 프로그램도 있다. 이 모두 프랑스의 예이다. 텔레비전이 한마디로 ‘공론장’, 즉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 여러 의견들이 오가면서 서로 부딪치고 싸우는, (보기에는 비생산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생산적인 교류의 공간이 된다.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 TV 프로그램 1
출처: France2의 On a tout essayé²⁾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랑스 TV 프로그램 2
출처: France5의 La Grande Librairie³⁾

2) <https://www.imdb.com/title/tt0320913/mediaviewer/rm2934534912/>

3) <https://www.france.tv/france-5/la-grande-librairie/>

‘공론장’의 역사적인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18세기 영국의 커피 하우스가 필수적으로 언급된다. 이곳은 하버마스가 말한 ‘논의하는 공중’이 모여 실질적인 공론장을 만들어 낸 곳으로, 그곳은 단지 귀족층이나 지식층들만 모여 정치적인 논의를 하던 곳이 아니다. 모든 계층, 상류층부터 중간 계층, 노동자 계급까지 함께 모여 정치, 종교, 남의 가정사, 남녀 관계, 미신 이야기, 사회적 가십 거리 등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며 말싸움을 벌이던 곳이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계층이 서로 어울려 논쟁과 말다툼을 하다 보니 사람들 각자가 결국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게 되고 비판적이거나 분석적인 생각을 품게 되며, 중국에는 시민 의식을 갖게 되어 그것이 차츰 단단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사실 유럽의 방송을 보면 18세기 커피 하우스의 이러한 난상토론 분위기가 방송으로 그대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토론식의 프로그램들은 대중적인 공론장을 형성하면서 시민들에게 사회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 정체성의 전수: 교육·문화적 가치

문화적 정체성의 전수 역시 유럽의 공영방송 프로그램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된 초기에는 특히 픽션 장르인 드라마가 이러한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대중들의 지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에 매우 열의를 보인 초기 TV 드라마 연출가들은 고전 소설을 극화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 제작과 난해할 수도 있는 소설의 드라마화도 주저하지 않았다.

사실 유럽의 방송들은 자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라마 제작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내던 방송사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문화 정체성의 전수라는 역할을 점차 내면화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역할을 방송이 당연히 해야 할, 태생적으로 품고 있는 근본 역할로 인지하게 된 것이다. 심지어 상업 채널조차 문화적이면서 교육적인 기능을 자신들이 담당해야 할 당연한 역할로 여기고 시청자들이 가볍게 볼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면서도 그 속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을 반영하는 내용들을 아주 매끄럽게 쇼적인 방식으로 연출해 낸다.

세계적인 음악 경연 프로그램 포맷으로 자리 잡아 2000년대를 풍미한 (한국의 '슈퍼스타 K'의 원조 프로그램인) 영국의 'Pop Idol'은 프랑스에서 'Nouvelle Star'로 각색되어 방송되었다. 지상파 상업 채널인 M6가 2000년대에 거의 10년간 정기적으로 방송했던 이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저녁(황금 시간대인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의 두 시간을 꼭 채웠음)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모여들게 하는, 당시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참가자들이 부르는 경연곡의 목록을 살펴보면 최신 유행곡보다는 1940~50년대의 프랑스 샹송, 60~70년대의 프랑스 락 음악, 80년대의 아방가르드한 프랑스 음악 등, 프랑스 고유의 대중음악을 시대별로 훑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시청하던 타깃 시청자가 대부분 10대의 프랑스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이 프로그램이 이들 청소년들에게 단지 음악적인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대중음악의 역사와 아울러 이전 세대의 음악에 묻어 있는 옛 감성과 감각 등도 함께 전수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유산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TV 프로그램 1
출처: M6. Nouvelle Star⁴⁾



문화적 유산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TV 프로그램 2
출처: JTBC. 싱어게인⁵⁾

4) <https://www.youtube.com/watch?v=00-f0leJRW4&list=PL68C47380F3C6DF34&index=2>

5) <https://tv.jtbc.joins.com/clip/pr10011199/pm10060983/vo10460015/view>

이렇게 유럽의 방송들은 자국의 문화적 유산들을 여러 종류의 포맷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 주는 프로그램을 발견할 수 있으니, 민영 채널인 JTBC가 올해 초에 방송한 ‘싱어게인’이 그것이다.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곡이 골고루 들어 있으면서 1970~2000년대의 곡들이 전체 경연곡의 2/3를 넘어서는 노래 목록을 지니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이 예전의 곡들에 묻어 있는 옛 시대적 감수성이 심사위원들의 코멘트나 해석을 통해 다시금 명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 등은 본 프로그램이, 더 나아가 한국의 프로그램이 현재 대중문화 정체성 전수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퀄리티 있는 상상력: 미학적 가치

픽션물 장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쪽은 미국의 상업방송이었다. 유럽의 공영방송처럼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드라마 제작의 사명감에 얽매이지 않았던 미국의 방송사는 초기부터 코믹한 요소나 로맨틱한 요소가 가미된 드라마를 양산해 냈다. 방송 3사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197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텔레비전 픽션물은 형식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굉장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 유대인 대학살에 연루된 한 유대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미니시리즈 ‘홀로코스트(Holocaust)’(1978)와 흑인 노예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뿌리(Roots)’(1977) 등은 미국 내에 사회적 논쟁의 불을 지피기도 하였다. 텍사스 오일회사와 목장을 운영하는 한 가문을 둘러싼 갈등과 치정을 그린 시리즈 ‘달라스(Dallas)’(1978-1991)는 세계적인 히트를 치며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의 문법을 바꿔 버리기도 했다. 유럽의 방송인들조차 ‘미국인들처럼’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며 ‘달라스’를 차용한 시리즈물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미국의 방송 시장에 유선 방송사들이 진입한 이후에는 드라마를 둘러싼 방송사 간의 경쟁은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에 들어 드라마의 작품성과 독창성 면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며 드라마 시장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 나간 방송사가 있으니, 바로 HBO이다. 1996년, “It’s not television, it’s HBO”라는 새로운 홍보 슬로건을 내걸고 이미지 쇄신 작업에 들어간 HBO는 ‘엘리트주의’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콘텐츠가 여느 텔레비전 채널들의 콘텐츠들과는 다름을, 다시 말

해 보다 우월한 콘텐츠를 강조한다. 그들의 채널 가입자들에게 이렇게 선별적인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과 달리 보다 상위층에 존재하는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나도 지식인층에 속한다.’는, 한마디로 ‘사회·문화적 지위’가 격상된 느낌을 받도록 만든 것이다.

이러한 HBO의 엘리트주의 홍보 전략의 대표적인 예로 ‘소프라노스(The Sopranos)’(1997~2007)의 홍보 포스터를 들 수 있다. 오른쪽 페이지 맨 위 사진은 1999년에 발표된 첫 번째 홍보 포스터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작품 ‘최후의 만찬’의 구도를 응용해 찍은 사진 포스터이다. 첫 번째 사진에 대한 연이은 호평과 함께 HBO는 2002년, 새로운 시즌의 시작과 함께 또 하나의 ‘예술적’ 포스터를 내놓는다. 이는 떼오도르 제리코(Théodore Géricault)의 ‘메듀즈호의 뗏목’의 구도를 차용한 이미지 포스터이다⁶⁾. 이들은 마피아 조직을 이끌며 가족과 조직원에 대한 무거운 부담감과 분노를 마음속 깊이 담고 있는 주인공 토니 소프라노의 불안하면서도 심약한 심리를 고도의 예술성과 함께 이미지로 표현했다고 칭송받았다.

6) Akass, K., & McCabe, J. (2014). Ce n'est pas de la télévision, c'est de la télévision de qualité. In F. Jost (Ed.), *Pour une télévision de qualité* (pp. 123-140). Paris: INA ed.



소프라노스 홍보 포스터(1999)

출처: HBO, Sopranos⁷⁾



소프라노스 홍보 포스터(2002)

출처: HBO, Sopranos⁸⁾



메듀즈호의 뗏목

출처: 루브르 박물관⁹⁾

- 7) <https://www.ifitshipitshere.com/the-last-supper-and-the-one-after-that-and-after-that-and-then-even-more/>
- 8) <https://www.hbo.com/the-sopranos/season-05>
- 9) <http://www.louvre.fr/en/oeuvre-notices/raft-medusa>

이들 포스터들과 함께 HBO는 본 픽션물에 위대한 예술 작품의 틀을 씌우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그들이 텔레비전 시리즈물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을 대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만들었고, 동시에 그렇게 수준 높은 작품을 대하는 자신 또한 엘리트 계층에 속한다는, 일종의 지적 충족감 또한 느끼도록 만들었다.

HBO의 드라마가 독창적이며 작품성 있다고 평가받은 것은 단지 이들 포스터들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작품성과 독창성을 지닌 픽션 시리즈물이라 했을 때 흔히들 기대하는 것은 색다른 장르의 틀 안에서 색다른 소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들일 것이다. HBO의 시리즈물이 그 독창성으로 인정받는 것은 확실하나,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픽션물이 장르적인 면이나 소재 면에서 그다지 독창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가능하게 해 준 미국의 고전적인 영화 장르들, 즉 서부극, 갱스터 무비, 로맨틱 코미디 등의 장르가 HBO의 시리즈물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서부극은 ‘데드우드(Deadwood)’, 갱스터는 ‘소프라노스’, 로맨틱 코미디는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에 각각 대입된다. 그런데 만약 HBO가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 장르의 틀을 가져오면서 장르적 클리셰까지 자신들의 시리즈물 속에 그대

로 재현했다면 HBO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수준 높은 채널로서의 평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데드우드’ 안에서의 총싸움은 전통 서부영화 속에서처럼 장렬하게 전개되지 않고, ‘소프라노스’ 안에서 갱스터들의 생활은 각박하기 그지없으니, 영화 ‘대부’ 안에서처럼 멋있거나 스릴이 있지도 않다. 또한 ‘섹스 앤 더 시티’ 안에서의 사랑은 해피엔드로 끝나지도 않는다. 이들 시리즈물들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 묘사하려는 일종의 사실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HBO의 시리즈물들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섹스와 폭력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 비속어의 남발도 이러한 사실적 표현의 의도하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HBO의 시리즈물들은 고전적 장르의 틀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각각의 장르가 지닌 클리셰들을 사실주의적 표현과 함께 비틀거나 무너뜨림으로써 내용적인 면, 형식적인 면에서 자신만의 독창성을 만들어 나갔다.

■ 한국 방송의 도약을 위한 다양성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도 많은 성장을 해 왔다. 1960년대의 라디오 방송 시대 때부터 시작된 드라마 전쟁은 1970년대의 텔레비전 드라마 전쟁으로 이어졌고, 1980-90년대의 수많은 작품들을 내놓으며 쌓은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방송은 2000년대 이후 한류 드라마 시대를 이끌어 내기까지 하였다.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 온 것이다. 그런데 한국 방송에서는 항상 모든 것이 드라마에만 집중되었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장르를 제외한 타 장르의 성장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2010년대에 종합 편성 채널들이 들어선 후, 토론식 예능 프로그램들-‘썰전’, ‘비정상회담’, ‘마녀사냥’ 등-이 제작, 방송되며 잠시나마 ‘입’들이 모여 시끄러운 말싸움을 벌이는 공론장이 형성되는가 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시끄러운’ 프로그램들도 하나둘씩 사라져 갔다. 이제는 정말 한국 방송도 종전의 관행-시청률에 전전공공하

면서 한 번 성공한 포맷만을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정말 도전적인 자세로 우리의 다양한 생각들과 감성들을 표현할 다채롭고도 독창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 대중문화의 수준이 많이 향상된 만큼, 이제 한국의 텔레비전도 차별성을 내세우며 조금 더 용기 있는 자세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 다양성이란 바로 용기와 도전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가치이다. 이 짧은 글 안에서 차마 다 기술하지 못한 텔레비전 방송의 역사와 프로그램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

김승수

고려거란전쟁에 대해 연구하며 그에 대한 소설을 쓰고 있다. 거란의 2차 침공(1010년)을 다룬 역사소설인 『고려거란전기, 겨울에 내리는 단비』를 펴냈고, 지금은 그 다음 이야기인 『고려거란전기, 구주대첩』을 집필 중이다. 방송 활동으로는 고려거란전쟁을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인 JTBC <평화전쟁 1019>의 대본을 썼으며, 직접 출연도 했다.

김설아

홍익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이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직 교수이다. 프랑스 파리2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계의 방송 역사와 방송 콘텐츠를 주로 연구해 왔고, 현재 '미디어 공론장' 연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도시공간' 연구로까지 개인적인 연구 분야를 넓히고 있다.

Diversitas List

1호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입니다 _ 이정모
고정관념은 정확할수록 문제다 _ 허태균

2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젠더 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다 _ 김홍탁
인공지능의 윤리학: 차별적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알고리즘을 꿈꾸며 _ 신혜린

3호 다양성, 차이 그리고 차별 _ 박경태
효율적 삶의 피안(彼岸) _ 배중훈

4호 다양하지 않음에 질문을 던지다 _ 윤석원
인구 변동과 다양성 _ 최승기

5호 과학기술은 왜 더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가 _ 임소연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습 장면 만들기 _ 이보라

6호 혁신의 산실, 실리온벨리의 기업 사례들로 살펴보는
다양성의 6하 원칙 _ 박은연
기형, 추함, 버림받음-프랑켄슈타인의 괴물 _ 노애경

7호 종교적 다양성에 관하여: 종교적 원판은
불법법칙인가, 가법법칙인가? _ 서명원
한국 교육에서 '다양화'의 이중적 함의 _ 전태원

8호 타이포그래피와 다양성 _ 유지원
한국어에 숨은 가장 일상적인 차별 _ 신지영

9호 다양성의 물리학 _ 김병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국가 _ 김희강

10호 다양성의 가치로 풀어낸 가능성
연구생태계에서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 _ 노정혜
극장은 다양성의 산물
세계 극장사에서 발견한 다양성의 가치 _ 박동우

11호 한국 스포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서 _ 정영수
성소수자의 권리 TV가 재현하는 성소수자 _ 박지호

12호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세상을 꿈꾸며 _ 민지영
왜 탄탄대로에는 다양성이 없을까? _ 양희연

13호 영화의 다양성, 영화의 다양한 시선들 _ 이대현
어디어장의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 읽기 _ 김지형

14호 딸들의 노래: 삶과 시간을 꿰는
흑인 여성들의 음악, 신화, 시 _ 류아정
미국법학으로의 산책 개인의 공간과 국가의 역할 _ 정인영

15호 고대의대 초기역사에 담긴
박애정신과 다양성 _ 이한정
죽음 후 삶이 시작된다 _ 이수현

16호 생활문: 재구성된 일상의 다양성 _ 조경숙
실내, 다채로운 울림이 공존하는 음악공동체 _ 조은아

다양성위원회 홈페이지에서 Diversitas PDF 버전을 읽실 수 있습니다.

<http://diversity.korea.ac.kr/diversity/research/booklet.do>



Diversitas

권호 17호
발행일 2021년 10월 15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diversity.korea.ac.kr
디자인·편집 사이시옷 www.saisiot.co.kr

※ 이 저술은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되었음

